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영(운영위원, 충북대 법학교수)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길은 달리 말하면 소용돌이같은 정치적 사건과 쟁론의 가운데를 의연하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규범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규범은 현재 헌법의 근본정신인 국민주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며 발견된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힘관계로 파묻혀 버릴지도 모르는 다양한 사건, 정책 그리고 비판들을 국민들의 자유로운 헌법논의의 장으로 옮겨놓는 일이다. 한때는 물리적 폭력으로 단절되기도 하고, 혹은 과거의 폭력을 기정사실화하는 폭압정권하에서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있기도 하고, 혹은 민주주의를 위한 '불법'적인 아우성속에서 이어져왔던 국민주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의 근본정신을 회복하고 되살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고 우리 미래의 문제이다. 그러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내란행위에 대한 검찰의 논리와 현재 진행중인 전두환, 노태우 두 피의자를 중심으로 하는 재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정부는 과거의 일련의 사건들을 당시의 상황에서 정치적 힘관계에서 발생한 사실로 바라보고 현재에서도 정치적 구도로 처리하려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현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연속적인 것을 단절된 것으로', '미래를 위한 현재의 개혁보다는 과거 사실의 적절한 폭로를 통한 과거개혁', '국민주권하의 문민정부가 아니라 문민정부하에 국민주권'을 최면걸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과거 군사정권 비리 하나는 현 정권이 최면걸린 지지를 받아내는 호재이고, 결국 김영삼정부는 현재의 개혁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로 자신을 유지하는 초라한 형상에 이르렀다.

어쨌든 현재 우리는 과거의 영욕이 뒤바뀌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육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만큼 짜증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할 일이 태산같고 넘어가야 할 산이 첨첨인데. 그리고 지금도 또다른 육체가 덧쌓이고 있는데 앞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걸어온 과거에서 조우한 강도들에게 얼어맞은 상처와 빼앗긴 돈때문에 되돌아 가는 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허망하다. 그것도 과거에는 강도들을 무서워하며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들과 강도질에 야합한 사람들조차 너나할 것없이 과거찾아 되돌아 가자고 부추킨다면.

과거를 낱낱이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것은 속이 시원하게 후련해지기는 하나 아무리 시원해진다고 하더라도 허망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계속해서 과거를 먹고산다면 현재는 '낭만적'일지 몰라도 미래의 희망과 기쁨에는 조금도 다가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비록 때로는 허망하고 때로는 그저 낭만적일지는 몰라도 결코 부당하거나 사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

음을하고 얹눌린 과거의 상처가 기성의 조형물로 혼존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용하는 것은 금방 지나면 또다시 음울한 과거가 될 것이고, 따라서 과거의 부정의를 이용해 현재의 부정의에 눈가림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6공화국의 5공비리, 문민정부의 6공비리가 그랬듯이 차기 정권에 의한 '문민비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과 '문민'적 노동정책, 아직도 서슬퍼런 국가보안법, 멀고도 먼 민중의 생존권 보장, 무시당하는 장애자 복지, 말만 풍성한 사법개혁과 매국적 관료 교육개혁, 허울뿐인 환경보호와 무분별한 핵도입, 엘리트문민정부에서 무시당하는 '비문민' 민중…, 어디 이뿐이겠는가. 뒤틀린 과거의 결과물이든 현정부의 작품이든 현재 산적해 있는 우리의 문제들, 다시말해 국민주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과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이 하나둘씩 들파될 때 과거정권의 비리는 현재성의 의미를 갖게되고 국민들은 조금씩 커가는 미래 희망과 기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왔으니, 또 나아가야 하지 않는가.

<주> 이상영 교수가 5월17일 광주시민연대모임이 5.18 행사로 주최로 국제청년캠프에서 발표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5.18'의 끝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 사 업 보 고

(4월 세째주~5월 둘째주)

## <제28, 29차 운영위원회>

### 6월8일 가족과 함께 두밀리로!

- ◎ 28차 운영위는 지난 5월2일 박찬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29차(약식)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8일 사랑방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 ◎ 두차례에 걸친 운영위원회에서는 청년정보문화센터에서 제안한 인터넷 네트워크 참가문제를 정리하여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는 채만수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 ◎ 9월중 인권영화제 개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영화분야의 전문가를 접촉, 빠른 시간 안에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 ◎ 30차 운영위원회 22일 오후7시 괴노현 운영위원 연구실(대학로 방송대 연구1동 302호실, 전화 740-4596)에서, 31차 운영위는 6월8일 장호순 운영위원이 사는 두밀리 집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31차 운영위원회에는 자연 경치가 뛰어난 장운영위원의 집으로 가는 만큼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며, 자문위원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1박2일이며, 가실 분들은 사무국으로 6월4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인권운동사랑방이 추진해온 인터넷 홈페이지 작업이 결실을 맺게되었습니다. 채만수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일 단위로 한글판 <인권하루소식>과 1주 단위로 <HUMAN RIGHTS WEEKLY NEWS>가 올라가고 1달 단위로 한국관련 인권자료도 띄울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좀 미흡해도 계속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방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분은 <http://www.hnc.net/~rights/>으로 하시고, E-mail 주소는 rights@hnc.net입니다.

### □ 인권하루소식 통신서비스 접속 간편 □

인권하루소식 접속방법이 간편해졌습니다. 01410에서 OLAND를 입력하고 3.인권하루소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하이텔 01410망 1.INFORSHOP 메뉴인 10.언론/인물/뉴스에도 17.인권하루소식이 올라감에 따라 보다 많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인권영화제 프로젝트 선정돼 □

시민운동지원기금에 제출된 인권영화제 프로젝트가 96년 하반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백만의 사업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권영화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2천만이 필요한 바나마지 예산의 확보를 위해 궁리를 해야겠습니다.

### □ 인권협 제4차 대표자회의 열려 □

우리 단체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인권단체의 네트워크인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의 제4차 대표자회의가 지난 5월7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김상근 상임대표등 9개 단체의 대표와 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상임대표로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김승훈신부님이, 차기 간사단체는 민변이 맡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5,6공 인권피해자에 대한 구제사업,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후속사업, 정보통신사업을 인권협의 공동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사태가 악화되어가는 경원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위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5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했습니다.

### □ 잠재독자 513명에 하루소식 권유문 발송 □

<인권하루소식> 독자의 저변 확대와 만성적인 재정 타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 종교인, 교수등 잠재독자 5백13명의 명단을 파악하여 지난 5월9일자로 <인권하루소식> 구독 권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 5월18일 사무국 전체 광주 집결 □

5.18 광주민중항쟁 16주기를 맞는 5월18일 사무국 상근자 전원은 광주에 집결, 광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지지 사람들과 만나 연대의식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 박찬운 운영위원 5월17일 출국 □

박찬운변호사가 5월17일 가족과 함께 출국,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박변호사는 3년동안 법학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박변호사는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연락처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 □ 회원통신 7월부터 회보로 대체 □

사무국에서는 오는 7월부터 보다 알찬 내용의 회지를 내기로 하고 준비중입니다. 회지는 12쪽 분량으로 넓 계획인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나 지제작에 참가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 96-04분기 재정보고('96 03/16-0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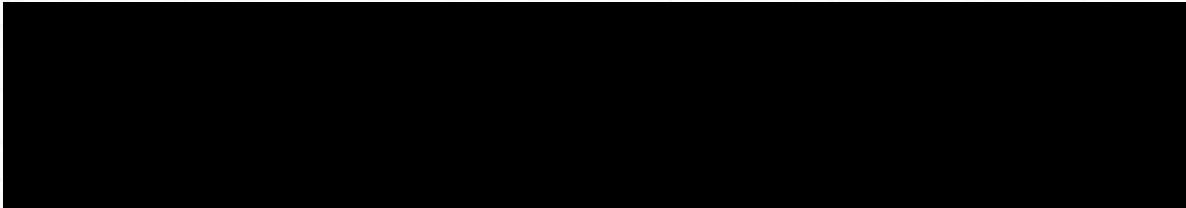
\* 지난달 회원통신 17호에 나간 96-04분기 재정보고가 편집상의 착오로 잘못 나갔습니다. 이에 다시 재정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이월: 1,353,407원

수 입	지 출
자문 · 운영위원회비	2,736,400
하루소식구 독 료	2,302,510
후 원 금	1,200,000
사업 수익	234,080
은행 이자	7,716
기타수익	326,260
계	6,806,966원
	계
	7,487,038원

결산잔액 673,335원

<96년 3월 운영,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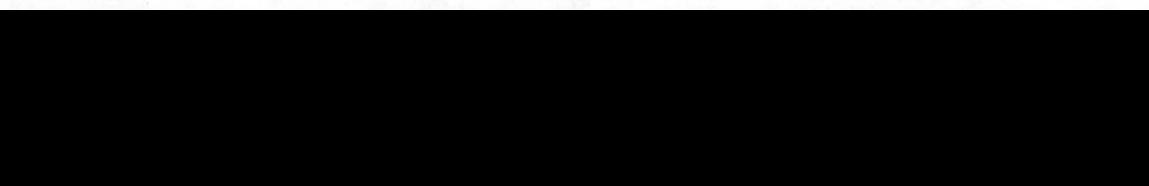
## 96-05분기 재정보고('96 04/16-05/15)

전기이월: 673,335원

수 입	지 출
자문 · 운영위원회비	2,397,000
하루소식구 독 료	2,619,200
후 원 금	11550
사업 수익	119,200
차 입 금	250,000
기타수익	629,500
계	6,026,450원
	계
	6,612,810원

최종결산: 86,975원

<96년 4월 운영,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소식

필요한 단행본과 자료집은 자료실에 연락하면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국제선언-유엔과 유네스코의 평화선언 자료집/ 백운선 편역/ 도서출판 오름/ 110쪽/ 95/ KO

: 평화에 관한 유엔과 유네스코의 중요 선언과 이 선언들이 취하고 있는 접근방법을 밝혀주면서 인류가 평화의 문화를 성취하기 위한 조건과 수단을 정리해 놓고 있다.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DAVID HICKS 지음/  
고병현 옮김/ 도서출판서원/ 351쪽/ 93/ KO

: 평화교육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대해 주로 오스트리아의 경험을 트대로 불평등, 부정의 환경, 차별, 핵, 전쟁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21세기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 주인인가-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  
의 발전과 역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음/ 도서  
출판 오름/ 182쪽/ 95/ KO

: 세계인권선언문의 내용과 이 선언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과정들, 그리고 선언의 법적,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함의와 반향 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을 담고 있다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ROSI BRAIDOTTI 등 지음/ 한국여성NGO위원회 옮김/  
328쪽/ 95/ KO

: 서구 개발모델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여성,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이슈와 관련된 대안적 개발, 환경적 개혁주의, 근본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에코페미니즘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지음/  
504쪽/ 94/ KO

: 서구의 여성해방이론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주장하기보다는 한국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가족,

노동, 성, 문화, 정책, 여성운동 등을 진단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결과나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최보문등  
지음/ 한국성폭력상담소 발행/ 95쪽/ 96/ KO

: 상담사례분석, 우리사회 성폭력에 관한 법의학적 과제(문국진), 성폭력피해아동의 정신감정에서 제기되는 정신과적 문제점등(최보문),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이백수)

◆마음을 앓는 사람들/ 이시가와 노부요시 지음/  
노명근·노혜련 옮김/ 247쪽/ 95/ KO

: 문명사회를 자처하는 오늘날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친사람들’을 쇠창살에 가두어두며 이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저자는 일반시민들이 ‘미친사람들’에게 가지는 편견의 철폐와 개방된 정신병원인 ‘벽이 없는 치료소’를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 켄트 헐 지음/ 인도주의실천의  
사협의회 장애인분과 움김/ 도서출판 인의협273  
쪽/ 92/ KO

: 미국에서 장애인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되찾기까지 정부 및 행정관리와의 투쟁, 그 법적 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위대한 용기/ 셰일라 케시디 지음/ 강우식 옮김/ 도서출판 열림/ 172쪽/ 96/ KO

: 영국 출신 외과전문의사인 저자가 70년대 초반 칠레의 군부정권 아래서 겪게 되는 고문과 수용소 생활 등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증언을 기록하고 있다.

◆교통권 신장을 위한 한·일심포지움/ 임삼진 등  
지음/ 녹색교통운동,교통권학회 발행/ 133쪽/  
KOJA

: 현대 일본의 교통문제(아베세이지), 자동차화와 시민교통(임삼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행위는 보행으로 교통서비스는 현대인의 기본권이다.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정책이 변해야 한다